

춘향제 가격안정 · 성공 개최 협력

남원시, 협약 통해 단체 회원들 동행 페스타 · 숙박 요금 사전고시제 등 동참

남원시는 8일,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남원추어요리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춘향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 회원들은 동행 페스타(음식점별 가격할인 및 서비스 메뉴 제공 등), 숙박 요금 사전고시제 등에 동참하며 가격안정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친절·위생·가격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17일에 외식업지부 위생교육 일정에 맞춰 부담요금 근절 결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위생·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관내 식품·공공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



남원시는 8일,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남원추어요리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춘향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제 기간에 부담요금을 근절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춘향제 ‘동행 페스타’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위생적이며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식

남원시, 협약 맺은 대학교 600여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참여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8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남원시는 작년 말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 없는 남원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광주대, 전주대 등 인근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춘향제에는 협약을 맺은 대학교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의 자원봉사도 운영해 축제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며, 남원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대, 원광

대 등 4개 대학교를 찾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시 문제점, 애로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봉사자-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총 4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람객 밀집공간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인파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8일 발대식은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단장 위촉과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춘향제를 앞둔 자원봉사자로서



제95회 춘향제 200만 방문기원 행사 모습.

의 자제와 각오를 다졌다.

고명철 봉사단장은 “축제를 찾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노력하고 즐거운 춘향제를 만들어 가자”라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이 남원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는 만큼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좌우한다”며,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에 힘입어 올해는 관광객 200만명이 남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올해 첫 모내기… 염기남 부군수, 현장 소통

8일 순창군 풍산면 도치마을의 박동민(44) 씨가 논 2.7ha에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하며 지역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직접 현장을 찾아 모판을 나르고 이앙기를 운전하는 등 모내기 작업에 함께 참여하며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수는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았다.

순창군은 3월부터 윤창소독기 운영,

벼 육묘상 상자처리제 지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벼 병해충 사전 방제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군비 23억 원을 투자해 지역농협과 협력해 벼·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제업체 선정 시 관내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해마다 반복



되는 기후 변화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순창군은 농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의료 사각지대 해소 총력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 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지원 사업은 △노인 임플란트 △백내장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다. 이 중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 임플란트 및 백내장 수술 지원은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순창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순창군 인구의 약 39%가 65세 이상 노인인로, 의료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노



인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여성 행정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임실군(군수 심 민)과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이 지난 7일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2025년 임실군 여성 행정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출산으로 경력 단절 여성 및 비취업청년 15명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컴퓨터활용능력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여성 직업 훈련 과정이다.

본 과정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엑셀 활용, 문서 작성하기, 직업 윤리와 마인드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 과정을 배워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연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또한, 구인을 원하는 임실군 관내 기업과 연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향상을 위한 기회의 교육 과정이다.

교육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28회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임실군청 5층 주민정보화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정령치 순환버스 4월부터 운영 재개

남원시가 정령치 지역의 관광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정령치 순환버스의 운영을 2025년 4월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을 출발 지리산 정령치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로, 남원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도로 통행 제한으로 탈공까지 단축 운행해 왔으며,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요금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이번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에

는 여러 개선 사항이 적용되어 KTX 남원역 도착 시간을 연계하는 시간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경유지로 추가함에 따라 춘향테마파크와 김병종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이 용이해 졌다.

또한, 일부 구간 심한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여 안전한 코스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승객뿐 아니라 기차들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교육부 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사업 선정

순창군이 2025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4,5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통해 학령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기초문해교육을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7개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문해(영어) 교육은 2개소에서 신규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순창군청 행정과(063-650-1239)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지사면 지사협
2분기 정기회의 가져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길영, 민간위원장 변현섭)가 지난 7일 2025년 2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인 ‘노후 환풍기 교체사업’ 추진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올 한 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관내 40가구를 대상으로 환풍기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4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변현섭 위원장은 “지역의 이웃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길영 지사면장은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과 면민을 잇는 중요한 다리”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